

#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 4차시.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 1.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법상 권리

#### 1) 무방식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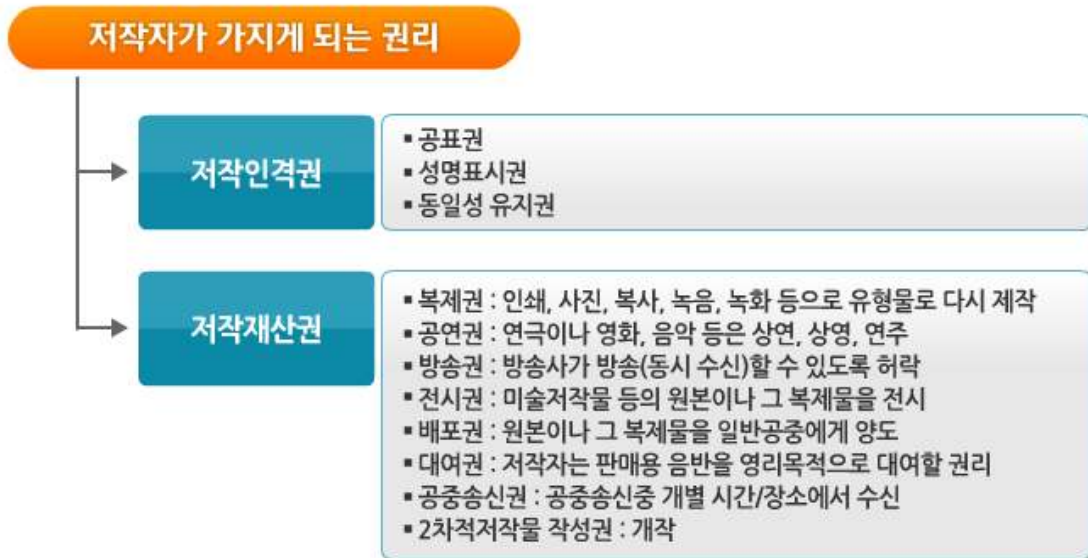
저작자는 창작을 하게 되면, 별다른 절차나 형식 없이 바로 권리가 생깁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과 많이 비교되는 특허권은 방식주의입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이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된 연월일에 맨 처음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제1차시에서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했었지요.

#### 3) 저작인격권이란

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나 내용이나 제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못하도록 할 권리 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이며, 베른협약은 1928년부터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명문으로 저작인격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작인격권의 기본 바탕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명예나 인격적 이익이 담겨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과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2.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합니다.

### 1) 저작인격권의 특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명예권이나 성명권 등의 인격적 권리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저작자가 사망 혹은 법인의 경우 해산하면 그와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소멸됩니다. 또한 양자 간의 합의로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이런 속성을 '일신전속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화가가 돈을 받고 자신의 그림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러한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저작인격권 행사 위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판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작인격권을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든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A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2)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공표권은 제3자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표하는 무단공표를 막아줍니다. 도공들이 자신의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듯이,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지 말 지를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프랑스 판례를 봅시다. 미술가 샤를 카무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카르코가 이를 주워 경매장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카무앵은 자신의 평판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버린 것인데, 시중에 유통되면서 판매된 것입니다. 이에 카무앵은 그 작품들을 파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파리항소법원은 카르코가 마음대로 복원 판매한 카무앵의 그림을 회수하여 파괴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참고로 베른협약에는 공표권이 없습니다. 공표권은 없는 나라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단 공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권이나 공연권, 방송권과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3)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자신이 창작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림에 이름을 적거나 낙관을 찍는 것, 책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볼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이름을 적는 것은 소유권, 내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성명표시권은 이와 비슷하게 글이나 그림을 창작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이고, 책의 소유권자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소설을 창작한 저작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적어주도록 하는 것이 성명표시권입니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주지 않으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4)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변경되거나 삭제 개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를 봅시다. 화가인 A는 1894년 베를린에 살고 있는 B의 주문에 따라 그녀의 집 계단부에 ‘바위섬의 사이렌’이라는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습니다. 사이렌이 나체로 있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는 A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집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덧칠을 해서 사이렌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유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존속되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령 벽화의 주문자이자 소유자이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반면 서태지 사건에서는 영상물에 수정을 가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태지 사건 (서울민사지법 1994. 9. 2. 선고 94가합28760 판결)**

"영상물에 대한 편집 등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는데 단순히 영상물의 내용에 따른 설명의 의미로 곡의 제목이나 "93 서태지와 아이들 LIVE 콘서트"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이를 서태지가 문제 삼았다.

**판결요지** : 보통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디오의 시작을 알리는 제호인 점, 고객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문제없다고 판결하였다. (동일성 침해 아님, 수정행위금지약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미대에 다니는 A군이 그린 그림을 교수님께서 수정해주셨습니다. 그림은 A군이 그린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 개변의 결과 그 가치가 높아졌는가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경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3조**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어려운 단어를 쉽게 바꾸거나 한자를 우리말로 고치는 것, 욕설이나 비속어를 교육목적으로 수정하여 게재하는 것은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손된 곳을 수리, 개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변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주 가창기술의 한계, 방송 등 기술적 수단의 한계 등에 따른 변경은 기술상의 한계로 보아 동일성 유지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